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2002년 12월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및 공학 전공
김 용 운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Social Reputation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Korea

지도교수 김 기 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2월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및 공학 전공
김 용 운

김용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2 년 12 월 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체면의 개념	5
2. 체면의 구성 요소	7
3. 체면지향행동의 구조	12
4. 한국인의 체면 문화와 행동	15
가. 한국인의 체면 문화	15
나. 한국인의 일반적인 체면 행동	22
5. 관련 연구의 고찰	26
III. 연구의 방법	29
1. 연구의 대상	29
2. 측정 도구	30
3. 조사실시 및 기간	31
4. 조사자료 분석	31
IV. 결과 해석 및 논의	32
1.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32
2.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34
3. 연령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39
4.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42
5. 논의	46
V. 요약 및 결론	50

참고 문헌	52
ABSTRACT	54
부 록	56

표 목 차

<표 1> 표집된 연구 대상의 응답자 구성	29
<표 2> 검사 척도별 문항 구성	30
<표 3>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및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32
<표 4> 대학생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및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33
<표 5>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성별 따른 독립 t 검증	35
<표 6> 연령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변량분석	39
<표 7>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변량분석	42

도 목 차

[도 1] 체면지향행동의 구조	1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체험하고 의식하며 한국인의 머리 속에 개념화된 체면은 개인적 경험이나 간접 경험(예, 대리학습) 등을 통해 그 의미가 부여된다. 체면은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요소를 포함한다. 체면은 한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산물로서 외형화 또는 표출화된 자기이며 사회적 자존심과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최상진, 유승엽, 1992).

이러한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구는 모든 문화권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보호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에 저항하는 욕구를 갖는다(Brown & Levinson, 1987). 이러한 체면은 사회적 얼굴(social fac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사회적 자존심(social esteem)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체면이 사회적 얼굴이나 사회적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체면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대우와 관련된 자존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체면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상대에게 원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맞는 대우를 한다면 사회적 자존심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에 합당하지 않는 대우를 한다면 체면이 손상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체면욕구를 결

정하는 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임태섭, 1994; 임영식, 1993;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에서의 체면은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은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관련된 체면 유지를 중시해 왔다(Choi & Kim, 1992).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박기순, 1994; 김양희, 1994; Tu, 1993 등), 아직도 당위성과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윤리가 한국인의 체면중시 특성과 관련이 있다(차재호, 1980)고 볼 수 있다.

이규태(1987)도 한국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한 체면’이라고 언급하였고,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의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Goffman(1959)은 체면은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가해지며 자신의 체면에 대한 존중은 상대방의 체면의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체면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임태섭, 1994)에 의하면 체면의 구성요소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면의 중시가 한국인의 자아개념의 일부이며, 체면의 중시라는 자아개념은 정신병리와는 무관하다(전현민, 노명래, 1991)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들(임태섭, 1994; 전현민, 노명래, 1991)에서 보면 체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회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체면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 병리적인 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낮고 외적인 통제 성향을 보이며(최창호, 1993),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과의 조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체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에 배려 동기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최상진(2001)은 체면지향행동은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으로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다. 그 하위 요인은 인격, 능력, 권위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격’이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 일탈하거나 어겼을 때의 경우(예, 거짓말이 진실로 나타났을 경우), ‘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능력을 해결, 또는 못하였을 때(예, 교수가 지식이 짧을 때), ‘권위’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예,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게 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체면은 조직내 구성원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명분을 중시하며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관련된 체면 유지를 중시하는데 교사집단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일반적으로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명분 지향적인 사회로서 체면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주의 사회에서의 초등학교 교사집단에서 체면지향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이 어떠한 지 알아보고, 교사들의 구성적인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구성적 및 방어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나. 체면지향행동은 교사들의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변인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인 배경

1. 체면의 개념

한글학회가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에 체면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체면을 지켜야만 남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체면 의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임태섭, 1994).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말한다(최상진, 유승업, 1992).

이러한 체면의 개념은 체(frame, body)와 면(superface, fa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면이 “사회적 얼굴(social face)”로 표기되기는 하지만, 체면은 최상진과 김의철(1992)에 의하면 지위(prestige), 위엄, 명예, 평가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체면은 덕, 내적 의도, 지위나 역할, 교양, 외향적 행동의 다섯 개 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덕, 내적 의도)은 내적인 것이고, 타인들은 인식할 수가 없다. 이 두 개의 층은 체면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지위나 역할, 교양의 층은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기술된다. 마지막 층인 외향적 행동은 직접 관찰이 가능한 부분이다. 직접 관찰이 가능한 행동과 상징은 개인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 주는 지표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체면은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양희, 1994; 박기순, 1994). 이러한 체면은 한국인에게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관여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문화 심리 이해의 필수적이라 하겠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의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면서 체면을 스스로 차리는 체면과 남이 세워주는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체면에는 친절보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식성 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대처 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고 주장하였다.

체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낮고 외부적 통제 소재를 갖고 있으며(최창호, 1993),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낮추는 언행을 하면 대인간 호감이 높아지고 처벌의 정도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식, 1993). 또한 체면 유지에 민감한 사람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진승범, 1995).

체면은 서구와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지향적이며, 평등 지향적인 사회에서보다는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심리 개념이며, 한국인에게 있어 하나의 사회적 성격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Choi & Kim, 1992).

위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체면을 종합해 보면

체면이란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

2. 체면의 구성 요소

한국인의 체면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임태섭(1994)은 처신, 인품, 품위, 역량 그리고 성숙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신은 우리 사회의 규범을 지켰을 때 유지되는 요소이며, 두 번째 요소인 인품은 외적 행위보다 내적인 평소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실되고 말을 삼가며 경우 바른 성향을 포함한다고 한다. 세 번째 요소인 품위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외적인 풍요-금전적인 여유, 멋진 외양, 번창한 가세를 들고 있다. 네 번째 요소인 역량은 개인적 지식보다는 사회적으로 입증된 능력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은 한 사람이 성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바를 해낼 수 있는 자질, 남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율, 자신의 의사와 위치에 대한 타인의 존중, 그리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수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체면은 자신이 지각하는 체면 수준과 사회적으로 인정된 체면 수준 사이에서 그 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Cheng(1986)은 이러한 체면 수준을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주관적 차원의 체면을 살펴보면, 이 주관적 차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존심으로서 자신의 가치 있음과 중요한 관련이 된다.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스스로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정도이다. 그에 비해 객관적 차원은 같은 사회 조직체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이다. 이러한 체면에 대한 개인 내 지각과 사회적 인정 수준은 개인의 체면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주장(임태섭, 1994; Cheng, 1986)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체면유지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인격이나 인품, 처신, 위신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면 요소들이 언어구사를 포함한 행동과의 적절한 조화 여부가 체면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체면 요소인 인품이나 처신, 품위를 동반하지 않고 주관적 체면수준만 높을 경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외양이나 행동을 꾸밈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체면은 문자 그대로 몸의 바깥면이며 따라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체면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체면을 지키려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체면욕구를 만족시키려 할 것이다(최상진, 유승엽, 1992). 이와는 반대로 타인의 체면욕구가 강하면 자신의 체면욕구를 억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의 체면을 세워 주는 언행을 할 수도 있다(강길호, 1994; 임영식, 1993). 이러한 체면과 관련된 욕구에 대해, 강길호(1994)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획득하기를 바라는 체면과 관련된 두 가지 욕구를 제시했다.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지키고자 하는 규범 욕구이다. 이러한 규범 욕구는 세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사회에 소속된 대다수 사람에 의해 지켜지는 예의적 측면이 있다. 둘째는 문화권마다 규범 욕구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는 규범 욕구는 사회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이나 생활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시 욕구인데, 과시 욕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돋보이는 자아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돋보이는 자아 이미지로서의 과시 욕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격, 신념, 행동 등이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따라서 체면 욕구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규범적 체면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의례성을 들 수 있다. 의례성은 표면화된 언행의 의도나 목적이 모호, 또는 결여되어 있거나 상처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과 작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점심식사 시간쯤 마주치는 친구나 동료에게 ‘밥 먹었니’라는 질문은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를 묻는 의미도 되지만, 그냥 지나쳤을 경우에 상대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어서 체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의 체면을 배려하는 동기에서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행은 사회 문화적 규범의 기대를 가지고 행해진다(최상진, 유승엽, 1994).

체면의 과시적인 특성은 체면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자기표현의 동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체면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동기는 그 사람이 ‘체면꺼리’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적절하게 체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행동양식이나 처세적 자기표현이냐로 구분된다. ‘체면꺼리’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타인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신분, 가문,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춘 것으로서 사회적 행동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도적 비의도적 행위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체면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최상진, 유승엽, 1992),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위나 직위 또는 서열을 유지하려는 적절한 상황적 언행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Cheng, 1986; Tjosvold & Huston, 1978). 그러므로 사회적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사회적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무시하는 협상 요구를 할 때, 타협적인 요구에 비해 이들은 상대에 대한 경쟁적 태도를 취하고 상대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Tjosvold, 1977; Tjosnold & Huston, 1978).

그러나 체면 행위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체면 유지를 위해 겉치레에 치중하는 현시주의로 나타나면 호화혼수, 가짜외제 승용차 시비, 사치성 소비 등이 발생한다(나은영, 1994; 성영신, 1994).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체면 행위를 자신이 체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체면꺼리’를 보이거나 과시함으로서 행해진다. 예를 들면, 성영신(1994)은 과시적 소비는 경제적 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존경의 욕구나 타인의 유지와 상승을 위한 동기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체면 소비의 한 유형으로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는 허세소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시적 소비나 체면 소비는 모두 동일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가 체면욕구의 하나인 과시욕구와 관련이 있으며(강길호, 1994), 금전적인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 체면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태섭, 1994)에서 과시적 소비는 체면 유지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체면 소비는 말 그대로 현재의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도 있으나(최상진, 유승엽, 1992), 현실적인 자신의 지위나 신분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속하길 원하거나 바라는 신분이나 준거 지위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타인들의 인정을 받거나 주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체면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성영신(1994)이 체면 소비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허세 소비는 체면 소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면 소비는 체면에 민감한 사람이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타인의 평가를 높임으로써 불안정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의 심리-사회

적 특징으로 이미지를 중시하고, 명예지위를 중시하며, 우유부단하고, 형식을 중시하는 것(최상진, 유승엽, 1992)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의 내적인 이미지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주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최상진, 유승엽, 1994)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면유지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노출하려는 시도를 둔감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에는 부와 권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시하는 방식, 자신의 학력이나 인격과 같은 신분과 관련된 내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 고급 신분자들과의 내집단(ingroup)관계를 보여줌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면꺼리의 현시 의도는 체면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노출함으로써 자신이 체면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자아표현의 동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이상과 같은 체면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임태섭(1994)의 처신, 인품, 품위, 역량, 성숙 등의 요소와 Cheng(1986)의 체면 수준의 주체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인 체면 유지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인격이나 인품, 처신, 위신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최상진, 유승엽(1994)은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의 내적인 이미지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주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체면의 구성요소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맺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체면지향행동의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체면의 구성요소로 처신, 인품, 위산, 품위, 역량, 성숙 등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타인과 관계맺음이 중요하다고 보며,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관심 분야인 특정집단에 대해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

다는 시사점을 받았다.

3. 체면지향행동의 구조

사회적 상황에서 체면이 발생하는 형태는 누구의 체면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지키는 형태로서 "세우는 체면"과 "지키는 체면",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형태로서 "지켜주는 체면"과 "세워주는 체면"으로 구분된다(최상진, 2000 ; 최상진, 김기범, 2000). 이들 체면행위에 개입되는 공통심리를 보면, 최상진(2001)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타인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주어진 맥락에서 바람직한 특정 형태의 체면을 구성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이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으로 명명함). 이와는 달리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는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타인이 경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이다(이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이라고 명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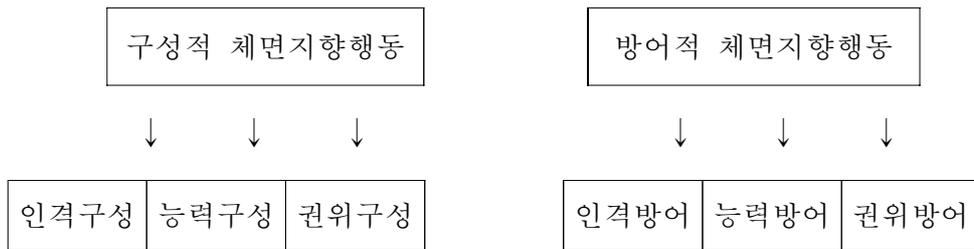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면과 유사한 서구의 개념은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looking glass self; Cooley, 1992)이다.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가 사회적 자기(social self)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행위자 자신의 인상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Arkin(1981)은 개인의 자기체시 경향성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안정(social approval)을 얻기 위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타인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특정한 모습을 구성하여 드러내 보이려

고 하고(acquisitive self-presentation), 타인이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자기를 드러낸다(protective self-presentation)고 제안하였다. 이석재(1996; Lee et al., 1999)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책략을 자기주장적인 책략(offensive self-presentation tactics)과 자기방어적인 책략(defensive self-presentation tactics)으로 범주화하였다. 자기주장적 책략은 행위자가 구성하려는 자기의 모습 또는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려는 데 활용되는 전략적 행동이고, 방어적 책략은 타인에게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 또는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략적 행동을 말한다. 이석재와 연구자들은 각각의 책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자기제시책략을 이원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자기제시책략의 이원구조는 한국 대학생(이석재, 1996)과 미국 대학생(Lee et al., 1999)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최상진(2000 ; 최상진, 김기범, 2000)은 체면에 개입되어 있는 심리과정을 이론화하면서 “체면 세우기”와 “체면 지키기”의 과정이 대인관계에서 작동함을 제안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체면 세우는 것은 사람들간에 공유되고 있는 체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행동이고, 체면을 지키는 것은 공유되고 있는 체면의 이미지에서 볼 때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다. 즉, 체면과 인상관리, 자기 제시에는 구성과 방어과정이 개입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체면 세우기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구성하여 얻으려는 심리과정이 개입되고, 체면 지키기에는 자기 방어적이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과정이 개입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개인이 체면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을 [도1] 과 같이 모델화하였

다. [도1] 에서 보듯이 체면지향행동은 체면지향행동이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으로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격’이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 일탈하거나 어겼을 때의 경우(예, 거짓말이 진실로 나타났을 경우), ‘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능력을 해결, 또는 못하였을 때(예, 교수가 지식이 짧을 때), ‘권위’라 함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예,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 1] 체면지향행동의 구조

위 체면지향행동의 구조에 따르면 체면지향행동이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으로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하면서 이석재, 최상진(2001)의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논문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연구과제 해결에 관련지으면 특정 집단에 대한 변인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받았다.

4. 한국인의 체면 문화와 행동

가. 한국인의 체면 문화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 중의 특징적인 체면은 한국 문화가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예절 의식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구는 사회적 얼굴(social face) 혹은 사회적 자존심(social esteem)이란 용어로 서구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진승범,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용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평등주의를 강구하는 서구에서는 이러한 체면보다는 자존심이 강조되고, 우리 나라와 같은 관계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명분 지향적인 사회로서 체면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다(최상진, 1997).

위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로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문화적 특징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7).

여러 학자들과 사회평론가 그리고 한국의 일반인들은 한국 사람이 체면을 중시한다는 말에 거의 합의하고 있다. 최재석(1989), 이규태(1977), 윤태림(1986) 등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이나 사회적 성격의 하나로 체면을 들고 있으며, 이들의 체면에 대한 견해는 대등소이하다. 최재석은 “지위를 의식해서 지위에 상응하는 외적행동양식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보장받는 것”을 체면의 본체로 기술하고 있다. 이규태(1977)도 이와 유사한 체면관을 역사적 및 야사적 사건의 실례를 통해 기술하면서, 체면의 표리이중구조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

다. 여기서 “속(裏)”은 본 마음, 사실 또는 사적자기(私的自己)가 될 수 있으며, “겉(表)”은 밖으로 표현된 마음, 외적명분 또는 공적자기(公的自己)가 될 수 있다.

결국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 또한 이규태(1977)는 한국의 체면과 서양의 명예를 구분하고 있다. 서구의 명예는 자신의 지위와 가문의 표리가 일치하는 방향에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체면은 표리의 일치보다는 당위와 명분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면에는 “치레”적인 성격이 강하다.

윤태림(1986)은 체면을 형식주의의 시각에서 속담 속에 나타난 체면사례들을 풀이하고 체면중시의 의식구조에서 수치문화(Shame Culture)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사실과 달리 겉치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체면으로 보았다. “양반은 얼어죽어도 겉불은 안 췌다”는 식의 행동을 예로 들어 형식적이며 겉치레적인 행동으로 체면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석상에서 여러 사람의 반대를 의식하여 남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동조행동도 체면치레적 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태림(1986)은 한국의 속담 중에 체면을 나타내는 속담, 예컨대 “냉수 먹고 이빨 쭈시기”,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가게기둥에 입춘대길”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체면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위신과 체면이 있으나 한국인은 이에 대해 외국인보다 더욱 큰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사에서 1990년도 연중기획시리즈로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한국인 진단(1991)에는 45개의 연재물이 수록된 바, 그 중 체면과 관계된 글이 세 편 실려 있다. 하나는 “호칭 인플레가 심하다”, 또 하나는 “자기과시 지나치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이다. 이들 세 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일반사회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진단하면서, 각 글의 후미에서 전문가의 종합적 견해를 통해 자신들의 관찰을 보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호칭 인플레가 심하다”에서는 한국사람들은 상대방을 칭할 때 경어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경칭 남용현상에 대해 김광식 교수는 “신분과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 경칭을 들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최종고 교수는 “한국인의 지위지향성이 경칭 과용현상을 낳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찍이 한국어 경어체계를 연구한 외국인 Howell(1967)도 한국인의 경어사용심리를 지위(status)와 유대(solidarity)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자기과시 지나치다”에서는 소위 한국인의 외제 및 유명상표 선호 행동과 신분지위 과시행동에 대한 실례를 통해 한국인의 자기과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경칭 과용현상은 상대의 지위를 과시적으로 높여주고 확인해 주려는 동기에서 나타난 행동이라면, 자기과시 행동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에서는 한국인의 대화나 행동에서 자주 발견되는 ‘인사 치레성’, ‘의례성’ 대화나 행동을 실례로 들면서 표리의 부동을 한국인의 특성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한국인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눈치를 살피고 체면을 중시하

며 외적으로 명분에 집착하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그 연원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김용운 교수는 표리가 다른 것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인은 ‘혼네’(本音·본심)와 ‘다테마에’(建前·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를 철저히 구별하여 사용하며, 따라서 일본인은 겉다르고 속다른 면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면을 표리부동이라는 한 단면에서만 포착할 때 일본인의 ‘혼네-다테마에’ 관계와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나 ‘다테마에’에는 자신이 아닌 상대의 명분과 명예를 상황적으로 높여주는 데 초점을 둔 사회적 의식(social ritual)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체면은 원초적으로 타인보다 자신의 권위와 명분을 과시하는데서 동기화된 상황적 행동(situational behavior)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다테마에’에는 상대에 대한 허구적 친절(politeness)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관습화, 관례화된 상호작용 상의 의식성(rituality)이 강하나, 한국인의 체면에는 친절보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식성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처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체면의 자기과시성 측면과 관련해서, 여동찬(1987)은 “현대판 군자와 특권의식”이란 주제의 글 속에서 한국사람들이 오만, 거만, 자신만만함을 몸에 걸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꼬집고 있다. 그가 말하는 특권의식은 거드름을 피우는 행동을 지칭하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체면지향 심리를 기저에 깔고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차재호(1988)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인은 명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명분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은 형식주의적 사고방식, 체면중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하는 유교의 윤리관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는 해석하고 있다. 김용운(1986)은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모욕은 “무시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다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한 작품 『그 석양(夕陽)』의 내용 속에 한국인 처가 일본인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큰 불행은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이 갖는 심각한 의미를 일본인들은 이해할 지 의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무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격의 모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했다는 것이 무시당했다는 말의 본 뜻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인 가세히데아키(1989)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은 졌다고 생각하면 깨끗이 ‘항복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인에게 ‘항복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항복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찰로 한국인들은 토론에 미숙하다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특히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토론이 합의로 수렴되는 일이 한국인에게 어렵다는 것이다(한국인 진단, 1990, p 8-9). 또한 한국인은 책임회피가 심하며(상계서, p 60-63), 제도탓을 잘 하며(상계서, p 80-84), 핑계를 잘 대는(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체면과 밀접히 관련된 현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항복을 하거나 토론에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들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의 체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이려는 행동은 흔히 최고 및 일류지향성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김정규(1991)는 47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겪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서 남녀 공히 학력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남자의 경우 출신학교의 배경이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학력과 출신학교가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일류지향성과 관련된 체면의 손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심리를 실증적 조사를 통해 조사한 이근후 등(1991)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아방어기제중의 하나가 허세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정신분석학적 시각에서 허세의 심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의 복합심리로 해석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허세는 체면유지와 관련된 표리부동의 심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 또는 무의식이 허세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면의 심리가 자기과시나 허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규태(1991)는 이러한 특성을 ‘분수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한국인의 환상 성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체면지향행동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다.

위의 글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체면이 어떤 심리 및 행위현상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체면은 1) 지위가 높음을 나타내려는 심리 및 사회문화구조와 관련되며, 2) 이러한 지위를 외적인 지위상징물이나 지위상징행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 보이게 되며, 3) 따라서 체면에서는 체면상징을 외부사람이 지각하는 것에

의해 체면현시 효과성 여부가 결정되며, 4) 체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형식주의가 나타나며, 또한 자기과시로 상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람이 체면을 서양사람들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적 논리와 관찰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집을 짓되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대문은 양반집 대문 아니면 영국의 원저궁 대문처럼 크고, 차는 경제성보다 고가성 차를 선호하고, 거동은 높은 지위의 인물이 하는 거동양식을 선호하고, 음식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시켜 지위 경제적 상층성을 암시하고, 의복은 자기의 경제적 신분에 넘치는 외제나 고가품을 선호한다는 현상에 대해 일반인 모두가 거의 시인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체면지향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예시된 학자나 사회평론가들의 글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한국인이 체면을 중시한다는 면을 예시하거나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체면이 어떤 심리기제에서 나타나며, 체면은 개념적으로 어떤 사회 심리적 현상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연구는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다. 체면이 한국인의 특성적 심리 또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면 그 내부구조를 분석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연구는 체면이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인지, 고유한 현상이라면 어떤 점에서 고유한 지, 한국의 체면과 유사한 현상을 지칭하는 서양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것이 체면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일본에서도 우리의 체면과 유사한 현상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유사하거나 다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체면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만일 체면이 한국인의 대인 상호작용, 자아개념, 지위-권력관계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념 및 현상이라면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적 이해에서 체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서양에서는 체면과 유사한 개념인 Face, Politeness, 또는 Dramaturgy 등의 개념을 전통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부상시켜 연구해 오고 있으며(예컨대, Goffman;1967, 1981), 기실 사회심리학적 개념은 서양의 경우 자신들의 일상적 문화생활 속에서 추출한 개념 또는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체험하고 의식하며 한국인의 머리 속에 개념화된 체면과 같은 현상을 연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체면은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예절의식을 중시하며 일반적으로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명분 지향적이다. 또한 친절보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상황에 따른 대처행동으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우리나라의 체면지향행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나. 한국인의 일반적인 체면 행동

최상진·유승엽(2002)은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친다”는 속담이 체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 이 속담의 이면에는 상놈 또는 서민은

물에 빠질 때 개해엄을 칠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냉수 먹고 이빨 쭈신다”는 속담이 있다. 전자의 속담은 높은 품격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자신의 품격이나 신분을 낮추거나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의 속담은 남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거짓으로 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신분위치를 높이려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전자의 속담과 관련해서 보면 체면을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 즉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으로, 그러한 행동에는 격식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격식은 밖으로 내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속담과 관련해서는 체면격식을 밖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는 동기가 사실을 호도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담의 심리학적 분석과 더불어 체면 유지적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실험은 교수와 학생의 인간관계적 상호작용 상황을 조성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상대 체면세우기” 행동을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1. 체면은 문자 그대로 몸의 바깥면을 말하며, 따라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체면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보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판단에 근거한 자기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체면은 밖으로 비추어진 외적 자존심이라 한다면, 자존심은 안으로 비추어진 내적 체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체면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현상은 아니다.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

는 즉 지체나 위신, 신분, 가문 등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며 행동의 격식이 되나, 내세울 체면거리가 별로 없는 즉,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내세울 체면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은 있을 수 있다.

3. 체면에는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의 격식이 현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 즉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체면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사회에서 요구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체면은 스스로 차리는 체면과 남이 세워주는 체면이 있다. 보통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먹어라”라는 말은 스스로 차리는 체면을 지칭하며, “내 체면 좀 세워주라”라는 말 속에는 본인, 상대, 제삼자의 삼자관계 속에서 상대가 본인을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줌으로써 제 3자에게 본인을 높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즉,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체면거리를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체면거리를 별로 신통하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 하에서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체면지켜주기”라 칭한다면 후자를 “체면치레”라고 칭할 수 있다.

5. 체면을 차리는 방법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행동 격식을 밖으로 스스로 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이며, 이자관계나 삼자관계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은 상대의 사회적 신분을 암시하는 행동을 해 보이거나 신분

을 나타내는 상징을 체면당사자와 연계시킴으로써(예컨대, “대기업의 사장님으로서 적어도 B.M.W는 타야 되지요”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해 줌으로써 본인은 물론 제삼자에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란 것을 암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체면을 지키거나 세워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6. 체면은 “안면” 또는 “얼굴”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남에게 혜택을 받고 그 은혜 갚음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보답을 할 때 옆에 사람이 “고양이도 낮 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약소한 보답을 할 수 있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낮 짝”은 “안면”을 말하며, 옆이나 사람의 기본도리를 못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안면몰수”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안면몰수는 상대와의 기존관계나 상대의 기대를 무시하고 이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안면이란 개념은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 교환법칙이나 에티켓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안면은 지위와 상관없이 대인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상호작용의 기본적 법칙으로 서양에서의 face의 개념에 가깝다. 서양에서 face를 지키고 지켜주는 상호작용 법칙은 “politeness(친절)”이며 한국에서 안면을 지키고 지켜주는 방식은 “겸손”이다. 물론 겸손 속에 상대의 지위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7. 체면이 세워지면 위신이 서고 위신이 세워졌을 때 이를 남에게 과시하게 되면 우쭐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체면이 떨어져서 체통을 잃으면, 남에게 업신여겨지게 되고 기가 죽을 수 있다. 또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리면 위선과 형식주의가 되고 체면을 지나치게 안 차리면 체통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면은 적당히 차려야 한다.

8. 체면은 지켜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상황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서로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리면 거리감이 생긴다.

9. 일상생활에서 “체면”과 “안면”의 용어는 혼용되기도 한다. 체면의 뜻으로서 “안면”이 사용될 때는 “사회적 안면”을 뜻하는 것으로, 체면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0. 체면은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인 반면 자기 지향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개인주의적 미국사회에서는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보다 덜 중요하다. 미국사회에서는 체면보다 안면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교환차원이다.

이상의 연구는 한국인의 체면을 사회심리학적인 분석으로 체면을 다루고 있으나, 교사에 대한 한정된 연구에는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체면 유지적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가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5. 관련 연구의 고찰

본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문제 및 가설	비고
1	자기감시와 체면, 광고 소구 유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배종태	1. 소비자의 개인차가 광고의 메시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 체면이 메시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	체면이 상사의 반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병준	1. 조직 내에서 상사의 체면과 관련된 요인 2. 체면지각에 따른 상사의 반응행위	
3	정, 우리성, 체면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인재	1. 정, 우리성, 체면은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 우리성, 체면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에 구조적 관계성을 보일 것이다.	
4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의 관계	최창호	1.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과의 관련 의미 2. 체면 중시집단과 경시집단과의 자아존중감 관계 3. 체면 중시집단과 경시집단과의 외적 통제성향 관계	
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태승범	체면과 사회적 불안에 관한 성차	
6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최상진 유승엽	1. 체면을 차리는 대인관계에서 누구 누구 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되는가 2. 어떤 경우에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가 3. 체면을 안차려도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체면이 떨어지면 어떤 손실이나 불리함이 초래되는가	

배종태(1997)는 자기감시정도에 따라 이미지와 품질을 소구하는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 반응과 체면 정도에 따라 이미지와 품질을 소구하는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 반응, 그리고 체면정도가 높은 사람의 생산지 강조 광고가 구매의도에 대한 반응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결과와는 달리 많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 왔고,

전병준(1990)은 한국의 기업조직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의 체면 세움, 체면 지킴 등의 체면행위의 측면과 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최인재(1999)는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식, 그리고 체면의식은 인간관계 형성과 과정을 넘어 서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한국적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았다.

최창호(1995)는 성격특성은 유의미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면을 성격변인인 자아 존중감, 통제성향과 함께 고려하면서 자기-고양 모델이 체면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태승범(1993)은 한국에서의 체면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사회-문화적으로 규범화되고 관행화되어 나타나는 개인 행동이며, 개인적인 측면에서 체면은 자신의 사회적 자존심과 존재감을 보장받고자 하는 동기적 속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맺고 있으며,

최상진.유승엽(2002)은 체면행동은 체면 상호작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연구 내용과 시사점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해시, 마산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사 총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율은 총 350부를 배부하여 288부를 회수(82.29%)하였으며, 회수된 288부 중 질문지의 문항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20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집수는 268명이었다. 표집된 연구 대상의 응답자 구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표집된 연구 대상의 응답자 구성

표본의 구성	성별		연령별(세)			교직경력별(년)		
	남	여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미만	5이상 15미만	15이상
응답자수	134	134	92	91	85	107	72	89
백분율	50	50	34.33	33.95	31.72	39.93	26.87	33.20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이석재, 최상진(2001)의 논문에서 사용된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조사”에서 개발된 “체면지향행동 검사”를 참고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으며, Likert 5단계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측정을 위하여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문항(21문항)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문항(21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내용은

첫째,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문항은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는 체면 행동을 측정하는 인격(7문항), 능력(7문항), 권위(7문항) 총 21문항이며,

둘째,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문항은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 행동을 측정하는 인격(7문항), 능력(7문항), 권위(7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척도별 문항 구성은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검사 척도별 문항 구성

(N=134)

척도문항(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내용
구성적 체면지향 행동	인격	7	1, 2, 3, 4, 5, 6, 7
	능력	7	8, 9,10,11,12,13,14
	권위	7	15,16,17,18,19,20,21,
방어적 체면지향 행동	인격	7	22,23,24,25,26,27,28
	능력	7	29,30,31,32,33,34,35
	권위	7	36,37,38,39,40,41,42

3. 조사 실시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는 2002년 6월 26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표집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집 대상학교는 교감과 교무부장 교사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해당교사에게 나누어주어 취지를 설명케 한 다음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4. 조사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회수된 자료의 설문은 총 4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SPSS/PC를 활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교사의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체면지향행동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경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으며, .10을 주변적인 차이로 인정하였다.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 및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각의 95% 신뢰구간을 구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및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체면지향행동	하위척도	M	SD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구성적	인격	2.27	.41	2.22	2.32
	능력	2.53	.44	2.47	2.58
	권위	3.05	.57	2.98	3.11
	전체	2.62	.31	2.58	2.65
방어적	인격	2.64	.40	2.59	2.69
	능력	2.92	.40	2.87	2.97
	권위	2.57	.43	2.52	2.62
	전체	2.71	.30	2.67	2.75
전체		2.66	.25	2.63	2.69

<표 4> 대학생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및 하위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체면지향행동	하위척도	평균	SD	α
구성적	인격	6.06	.72	.75
	능력	6.15	.90	.56
	권위	5.67	.92	.53
	전체	5.96	.72	.75
방어적	인격	6.10	1.00	.70
	능력	5.38	.80	.53
	권위	6.23	.89	.54
	전체	5.90	.71	.74
전체		5.93	.63	.83

주) 척도는 1(매우 드물게)부터 9(매우 자주)

<표 3>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척도 점수의 평균은 $M=5.93$ 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에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척도 점수의 평균은 $M=2.66$ (신뢰구간 2.63-2.69)으로 보통 수준($M=3.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체면지향행동을 살펴볼 때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은 전체가 $M=5.96$ 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격적 요인($M=6.06$), 능력적 요인($M=6.15$), 권위적 요인($M=5.67$) 모두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전체가 $M=5.90$ 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격적 요인($M=6.10$), 능력적 요인($M=5.38$), 권위적 요인($M=6.23$) 모두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척도별로 볼 때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은 전체가 $M=2.62$ 로 보통 수준($M=3.00$)보다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인격적 요인(M=2.27), 능력적 요인(M=2.53), 권위적 요인(M=3.05) 중 권위적 요인이 보통 수준(M=3.00)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척도들은 보통 수준(M=3.00)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전체가 M=2.71로 보통 수준(M=3.00)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격적 요인(M=2.64), 능력적 요인(M=2.92), 권위적 요인(M=2.57)에서 보통 수준(M=3.0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능력적 요인(M=2.92)은 보통 수준(M=3.00)에 가깝게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각 하위척도인 인격, 능력, 권위와 함께 체면지향행동 전체 점수를 남녀 교사에 따라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표 5>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성별에 따른 독립 t검증

체면지향행동	하위척도	성별	N	M	SD	t
구성적	인격	남	134	2.19	.43	-3.278**
		여	134	2.36	.38	
	능력	남	134	2.50	.50	-1.089
		여	134	2.56	.37	
	권위	남	134	3.08	.67	.973
		여	134	3.01	.43	
	전체	남	134	2.59	.37	-1.349
		여	134	2.64	.24	
방어적	인격	남	134	2.57	.37	-3.158**
		여	134	2.72	.40	
	능력	남	134	2.85	.43	-2.769**
		여	134	2.99	.36	
	권위	남	134	2.53	.43	-1.597
		여	134	2.61	.43	
	전체	남	134	2.65	.30	-3.453**
		여	134	2.77	.28	
전체	남	134	2.62	.29	-2.850**	
	여	134	2.71	.21		

* * $p < .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 점수에 있어서 남녀 교사는 $\alpha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 = -2.850, p < .01$). 따라서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평

균에 있어서 여교사가 $M=2.71$, 남교사가 $M=2.62$ 로 여교사가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점수에 있어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교사가 $M=2.36$ 이고 남교사가 $M=2.19$ 로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3.278, p<.01$). 따라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이 바르다는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전체 점수와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권위적 하위척도의 평균이 남교사($M=3.08$)와 여교사($M=3.01$)가 함께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하위척도, 즉 인격적 하위 척도의 남교사($M=2.19$), 여교사($M=2.36$), 그리고 능력적 하위 척도의 남교사($M=2.50$), 여교사($M=2.56$) 모두 낮았으며, 인격적($M=2.36$) 하위 척도와 능력적($M=2.56$) 하위 척도는 모두 여교사의 평균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위나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체면지향행동에는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달리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을 살펴보면, 평균에 있어서 여교사가 $M=2.77$ 이고 남교사가 $M=2.65$ 로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전체 점수는 $\alpha=.01$ 수준에서 남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3.453, p<.01$). 따라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인 지위나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은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교사가 $M=2.72$ 이고 남교사가 $M=2.57$ 로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3.158, p<.01$). 따라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에서 일탈하였거나 어졌을 경우는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능력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교사가 $M=2.99$ 이고 남교사가 $M=2.85$ 로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2.769, p<.01$). 따라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능력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권위적 요인에서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권위적 하위척도와 달리 여교사의 평균($M=2.61$)이 남자교사의 평균($M=2.53$)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사들의 연령을 30세 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과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별 전체 평균, 그리고 각 하위 척도인 인격, 능력, 권위 평균을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령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변량분석 (* * * p<.001)

체면지향행동 하위척도	연령	N	M	SD	F	
구성적	인격	30세미만	92	2.44	.34	15.640***
		30세이상-40세미만	91	2.26	.39	
		40세이상	85	2.11	.45	
	능력	30세미만	92	2.57	.37	.626
		30세이상-40세미만	91	2.51	.36	
		40세이상	85	2.50	.58	
	권위	30세미만	92	2.98	.44	1.137
		30세이상-40세미만	91	3.07	.64	
		40세이상	85	3.10	.60	
	전체	30세미만	92	2.66	.24	1.917
		30세이상-40세미만	91	2.61	.30	
		40세이상	85	2.57	.38	
방어적	인격	30세미만	92	2.71	.36	2.822
		30세이상-40세미만	91	2.63	.42	
		40세이상	85	2.57	.37	
	능력	30세미만	92	2.97	.38	1.622
		30세이상-40세미만	91	2.92	.38	
		40세이상	85	2.86	.45	
	권위	30세미만	92	2.63	.37	1.564
		30세이상-40세미만	91	2.56	.41	
		40세이상	85	2.52	.51	
	전체	30세미만	92	2.77	.25	3.721*
		30세이상-40세미만	91	2.70	.29	
		40세이상	85	2.65	.33	
전체	30세미만	92	2.72	.19	3.971*	
	30세이상-40세미만	91	2.66	.24		
	40세이상	85	2.61	.3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에 있어서 연령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30세 미만'의 교사 $M=2.72$,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66$, '40세 이상'의 교사 $M=2.61$ 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f_1, df_2) = 3.971, p<.05$). 따라서 연령적으로 '30세 미만'의 교사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을 살펴보면, 인격적 요인의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44$,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26$, '40세 이상'의 교사 $M=2.11$ 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f_1, df_2) = 15.640, p<.001$). 따라서 연령이 '30세 미만'의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바른 행동 규범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나머지 하위척도와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을 볼 때, 능력적 요인의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57$,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51$, '40세 이상'의 교사 $M=2.50$ 으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적 요인의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98$,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3.07$, '40세 이상'의 교사 $M=3.10$ 으로서 '40세 이상'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권위적 하위척도의 평균이 '40세 이상'의 교사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M=3.10$) 다른 하위척도에서는 '30세 미만'의 교사들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인격 M=2.44, 능력 M=2.57).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을 살펴보면,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77,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70, '40세 이상'의 교사 M=2.65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 f_1, d f_2) = 3.721, p < .001$). 따라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인 지위나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은 연령이 낮은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하위척도들 중 능력적 요인($F(d f_1, d f_2) = 1.622, p > .05$)과 권위적 요인($F(d f_1, d f_2) = 1.564, p > .05$)에서 연령에 따른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격적 요인은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alpha = .1$ 수준에서는 연령에 따른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d f_1, d f_2) = 2.822, p < .1$). 따라서 인격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에서 일탈하거나 어겼을 경우는 연령이 '30세 미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격적 요인의 평균을 보면 '30세 미만'의 교사 M=2.71,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63, '40세 이상'의 교사 M=2.57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능력적 요인의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97,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92, '40세 이상'의 교사 M=2.86으로서 '30세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적 요인의 평균으로 '30세 미만'의 교사 M=2.63,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교사 M=2.56, '40세 이상'의 교사 M=2.52로서 '30세 미만'의 교사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력적 요인과 권위적 요인에 따른 요소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교직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사들의 교직 경력연령을 '5년 미만', '5년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과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별 전체 평균, 그리고 각 하위척도인 인격, 능력, 권위 평균을 교사들의 교직경력에 따라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변량분석

* * * $p < .001$, * * $p < .01$, * $p < .05$

체면지향행동 하위척도	경력	N	M	SD	F	
구성적	인격	5년미만	107	2.42	.35	17.023***
		5년이상-15년미만	72	2.28	.40	
		15년이상	89	2.09	.43	
	능력	5년미만	107	2.57	.37	1.462
		5년이상-15년미만	72	2.54	.36	
		15년이상	89	2.47	.56	
	권위	5년미만	107	3.01	.44	.395
		5년이상-15년미만	72	3.06	.70	
		15년이상	89	3.08	.59	
	전체	5년미만	107	2.67	.25	3.797*
		5년이상-15년미만	72	2.63	.32	
		15년이상	89	2.59	.36	
방어적	인격	5년미만	107	2.68	.35	1.139
		5년이상-15년미만	72	2.64	.43	
		15년이상	89	2.59	.40	
	능력	5년미만	107	2.95	.38	1.270
		5년이상-15년미만	72	2.95	.37	
		15년이상	89	2.86	.45	
	권위	5년미만	107	2.65	.38	2.818
		5년이상-15년미만	72	2.52	.44	
		15년이상	89	2.52	.47	
	전체	5년미만	107	2.76	.26	2.771
		5년이상-15년미만	72	2.71	.30	
		15년이상	89	2.66	.33	
전체	5년미만	107	2.71	.21	4.765**	
	5년이상-15년미만	72	2.67	.25		
	15년이상	89	2.60	.29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에 있어서 교직경력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5년 미만'의 교사 $M=2.71$,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67$, '15년 이상'의 교사 $M=2.60$ 으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 f_1, d f_2) = 4.765, p < .01$). 따라서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의 교사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에 있어서 교직경력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5년 미만'의 교사 $M=2.67$,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63$, '15년 이상'의 교사 $M=2.59$ 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d f_1, d f_2) = 3.797, p < .05$). 따라서 교직경력이 '5년 미만'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적합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는 행동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에서의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 평균에 있어서 교직경력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5년 미만'의 교사 $M=2.42$,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28$, '15년 이상'의 교사 $M=2.09$ 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d f_1, d f_2) = 17.023, p < .001$). 따라서 교직경력이 '5년 미만'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바른 행동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능력적 요인($F(d f_1, d f_2) = 1.462, p > .05$)과 권위적 요인($F(d f_1, d f_2) = .395,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척도 중 능력적 요인의 평균으로 '5년 미만'의 교사 $M=2.57$,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54$, '15년 이상'의 교사 $M=2.47$ 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척도 중 권위적 요인의 평균으로 '5년 미만'의 교사 $M=3.01$,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3.06$, '15년 이상'의 교사 $M=3.08$ 로서 '15년 이상'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을 볼 때, 능력적 요인에서는 '5년 미만'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M=2.57$), 권위적 요인에서는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M=3.08$). 따라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능력적 요인과 권위적 요인에 따른 요소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alpha=.1$ 수준에서는 교사들의 교직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 f_1, d f_2) = 2.771, p < .1$). 평균을 보면 '5년 미만'의 교사 $M=2.76$,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71$, '15년 이상'의 교사 $M=2.66$ 으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은 '5년 미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하위척도들 중 인격적 요인($F(d f_1, d f_2) = 1.139, p > .05$)과 능력적 요인($F(d f_1, d f_2) = 1.270, p > .05$)에서 교직경력에 따라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위척도 중 인격적 요인의 평균을 보면 '5년 미만'의 교사 $M=2.68$,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 M=2.64, '15년 이상'의 교사 M=2.59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위척도 중 능력적 요인의 평균을 보면 '5년 미만'의 교사 M=2.95,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95, '15년 이상'의 교사 M=2.86으로서 '5년 미만'의 교사와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가 공동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위적 요인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alpha=.1$ 수준에서는 교직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df_1, df_2) = 2.818, p < .1$). 평균을 보면 '5년 미만'의 교사 M=2.65, '5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M=2.52, '15년 이상'의 교사 M=2.52로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권위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5년 미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해시, 마산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체면지향행동의 하위척도인 구성적인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이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기초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점수와 하위척도인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각 요인인 인격, 능력, 권위 요인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 권위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 체면지향행동 전체의 평균은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하는 체면지향행동이 대체로 보통수준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타인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권위 요인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교사집단에서는 보통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각 하위척도인 인격, 능력, 권위와 함께 체면지향행동 전체 점수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체면지향행동이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교사의 체면지향행동이 전체 평균에 있어서 남교사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것은 체면 유지에 민감한 사람은 여성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다는 진승범(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들에게도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경우 전체적인 체면유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이 바르다는 인격적 요인이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

소 높았다. 이 또한 여교사가 체면유지에는 남교사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중의 하위척도 중 권위적 요인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진승범(1995)의 연구와는 상대적으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보통 수준 이상으로 평균이 나와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과 구성적·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 그리고 하위척도인 인격, 능력, 권위의 평균을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적으로 '30세 미만'의 교사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 주는 행동이 다소 높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으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연령이 많을수록 체면치레가 심하고 젊을수록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낮은 교사의 체면치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하위요인 중 인격적 요인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이 바르다는 연령이 낮은 교사일수록 체면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한다고 할 수 있다.

지위나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체면행동은 연령이 낮은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사람들의 사고인 자기 지향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하위척도 중에서도 인격적 요인은 연령이 낮은 교사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신분에 맞

는 인격상의 행동에서 일탈하거나 어겼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이 교직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 구성적·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평균과 각 하위요인인 인격, 능력, 권위를 교사들의 교직경력에 따라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의 교사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하여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고자 하는 행동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에서 교직경력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5년 미만의 교사가 다른 교직경력 집단보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적합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는 행동에 다소 높았다. 이는 한국인은 사회적 의식정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대처행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최상진·유승엽(1992)의 연구를 뒷받침하여 교직경력이 낮은 교사가 다른 교직경력 집단이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평균에서 교직경력에 의해 분류된 교사집단은 5년 미만의 교사가 다른 교직경력 집단보다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을 타인이 경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이 다소 높았다. 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자기방어기제 중의 하나가 체면유지와 관련된 표리부동의 심리와 관계있는 허세임을 밝히는 이근후(199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교직경력이 낮은 집단에서 다른 교직경력 집단 이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대해 교사들의 전체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그리고 각각의 하위요소인 인격요인, 능력요인, 권위요인에서 교사들의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변인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는데 조사 도구는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측정을 위하여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문항(21문항)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문항(21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문항은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는 체면 행동을 측정하는 인격(7문항), 능력(7문항), 권위(7문항) 총 21문항이며,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문항은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 행동을 측정하는 인격(7문항), 능력(7문항), 권위(7문항) 총 21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문항의 반응형식은 5단계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해시, 마산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교사 총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율은 총 350부를 배부하여 288부를 회수(82.29%)하였으며, 회수된 288부 중 질문지의 문항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20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집수는 268명이었다. 응답지를 채점한 결과는 SPSS/PC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교사들의 전체적인 체면지향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 및 하위척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각의 95%신뢰구간을 정해 결과를 알아보았고,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체면지향행동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 t검증 방법을 적용하고, 교사들의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른 체면지향행동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량분석(F검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의 전체적인 경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거나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은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연령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거나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연령이 낮을수록 다소 높은 관계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거나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은 교직경력에 따라 다르며,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체면지향행동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 국제한국학회(1997).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문화사.
- 배종태(1997). 자기감시와 체면, 광고 소구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여동찬(1987). 이방인이 본 한국 한국인. 서울 : 중앙일보사.
- 윤태림(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도방도서.
- 이귀혜(1995). 체면 손상과 대인관계적 특성이 인상관리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규태(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삼중당.
- 이석재 · 최상진(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 임태섭(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욕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0호.
- 임태섭(1995).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한나래.
- 전병준(1990). 체면이 상사의 반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진승범(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재호(199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재심리학의 이해. 서울:학문사.
- 최상진(2000). 한국인의 심리. 서울:중앙대 출판부.
- 최상진 · 김기범(1998).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집. 서울.
- 최상진 ·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 사회, 6(2), 137-157. 한국심리학회, 서울.
- 최상진 · 유승엽(1994). 한국인이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94

-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369-385. 서울.
- 최상진 · 유승엽(200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최상진 · 최인재 · 김기범(1999). 정, 체면 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의 관계. 1999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최상진 · 한석규(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 최인재(1999). 정 · 우리성 · 체면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미치는 영향.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사.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 사계절출판사.
- 최창호(1993).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태승범(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 Arkin. R. M.(1981). Self-presentation. In D. M. Wenger. & R. R. Vallacher (Eds).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p. 158-18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g, C. Y. (1986). The concept of face and its Confucian root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 329-348.
- Cooley. C. H. (192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Rev. ed). New York : Charles Scriber's Son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 The Overlook Press.

ABSTRACT

A Survey on the Social Reputation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Korea

by Kim, Young-Woon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and Technology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Major Advisor; Kim, Ki-Min

This thesis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eneral recognition of social reputation which th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seem to have. To achieve this aim more effectively, the following sub-questions were asked and inquired. (1) What is the general recognition level of social reputation which th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show? (2)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reputation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al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career etc.?

One research instrument was constructed in this thesis by the help of some professionals. This instrument, that is, one questionnaire consists of two parts: extroversive and introversive social reputation behaviors. Each part has such the same three elements as character, ability, and authority. The number of total items is 42, each part 21, each element of each part 7. The final

subjects were 268 elementary schoolteachers.

Numbers, Mean,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t and F test was applied to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findings of this thesi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general level of social reputation recognition which the elementary schoolteachers show is a little lower than the average. But the authority element of the extroversive part and the ability element of the introversive part are about to the average.

(2) Generally speaking, the femal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are more oriented towards the social reputation than the males. Especially this tendency is more distinguished in the total introversive part and the ability element of both part.

(3) Generally speaking, the younger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are more oriented towards the social reputation than the older. Especially this tendency is more distinguished in the total introversive part and the character element of the extroversive part.

(4) Generally speaking, the lower career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are more oriented towards the social reputation than the higher. This tendency is more distinguished in the total extroversive part and esp. the character element of the extroversive part.

부 록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집단 교원들의 체면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귀중한 의견을 연구자료로 사용코자 하며 설문지 내용은 정답이 따로 없으므로 한 질문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저의 석사논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선생님의 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 6월 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 및 공학전공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별 : ① 남 ② 여
- 2. 연 령 : 만 () 세
- 3. 교직경력 : () 년

(응답 방법)
 질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에 선생님이 생각한 바를 아래 보기
 와 같이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질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평소에 화를 잘 참는 편이다	V				

질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소한 오해가 있을 경우 시시비비를 따지려 하지 않는 편이다.					
2.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					
3.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겸허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4. 사회적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함을 보이려 한다.					
5. 공공장소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기 보다 공중질서를 지키는 편이다.					
6. 대개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려 한다.					
7. 갈등이 있는 경우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					
8. 상대방이 아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모른 척하며 상대방을 추켜세우려고 한다.					
9. 경험이 많은 일이면 먼저 해보겠다고 나서는 편이다.					
10.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낸다.					
11.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탁을 받으면 사양하지 않는 편이다.					

질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일의 성과가 좋으면,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 한다.					
13. 경제적 부담이 다소 가더라도 타인에게 전가하기보다 내가 지려고 하는 편이다.					
14. 나의 능력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편이다.					
15.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근엄하고 여유가 있는 표정을 짓는 편이다.					
16.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은 지키려 한다.					
17.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품위있게 행동하려 한다.					
18.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대화할 때, 내 주변에 훌륭한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다.					
19. 같은 값이면 유명상표가 붙은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다.					
20. 남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남들이 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려 한다.					
21.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전문 용어나 어려운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질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일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들이는 편이다.					
23. 나에게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있을 때는 사실의 진위를 끝까지 밝히려 한다.					
24.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허물은 가급적 덮어주려고 한다.					
25.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자세히 해명하는 편이다.					
26. 내가 말을 실수하였을 때, 나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한다.					
27. 책임 맡은 일을 잘못된 경우, 그럴만한 까닭이 있음을 설명하는 편이다.					
28. 상대방이 비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서 설득시키려 한다.					
29. 나의 약점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지 않으려고 한다.					
30. 게임에서 지면, 이길 때까지 몇 번이고 게임을 계속하려고 한다.					
31. 내가 주도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남이라고 더 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다.					

질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 일이 생각보다 잘 안되었을 때,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다.					
34. 내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 한다.					
35. 특출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는 편이다.					
36.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속이 좁다고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37. 내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의논한다.					
38.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명분이라도 있는 일인지를 따지는 편이다.					
39.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편이다.					
40.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하려 한다.					
41.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피하는 편이다.					
42.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결정하는 편이다.					